

나를 기억하소서

- 삼손의 기도 -

삿 16:21-28

A. 서론 - 삼손 소개

1. 삼손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(재판관)
2. 그는 날 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구별되었고,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큰 힘을 얻음
3.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구해냄
4. 그는 외부의 적은 이겼으나 자기 속에 있는 욕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
5. 비록 그는 욕신적인 삶을 살았으나,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으로 열거됨
(히 11:32)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?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
6.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죄와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 돌이킬 때,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함

B. 삼손의 생애

1. 주의 천사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림 (삿 13:3-5)
 - a. 성경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린 사례는 많지 않음
이삭 (창 18:14), 침례자 요한 (눅 1:13), 예수 그리스도 (눅 1:31)
 - b.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함
2. 그는 나사르 사람으로 구별됨 (삿 13:4-5)
 - a. 나사르 사람이란,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
 - b. 나사르 사람이 지켜야 할 법 (민 6:2-7)
 - i.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. 포도즙, 포도주, 건포도빵, 씨앗, 뿌리, 잎...
 - ii. 바쳐진 기간 동안은 머리털을 깎지 못함 (삼손은 종신토록 바쳐진 사람)
 - iii. 죽은 사체를 만지지 못함
3.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
 - a.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왕, 재판관, 대언자, 성막 기술자 등 일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
 - b. 삿 13:25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심
 - c. 삿 14:6 주의 영께서 강하게 임함 (Heb. overpowered by Holy Spirit)
 - d. 삿 14:19 주의 영께서 임함
 - e. 삿 15:14 주의 영께서 강하게 임함 →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심 (삿 16:20)
4. 그는 나사르 사람의 법을 지키지 않음
 - a. 시체를 만짐 - 겨우 꿀 때문에 (삿 14:8), 나귀 턱뼈 (삿 15:15)
 - b. 쉬운 명령 하나를 어기면 다른 명령도 어기게 됨. 아마 방탕한 중에 술도 마셨을 것임

- c.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 - 주로 여자 문제,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
 - i.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음 (삿 14 장) - 이방민족과 결혼 금지, 결혼 실패
 - ii. 가자 지방의 창녀에게 들어감 (삿 16:1) - 고전 6:15-16 창녀와 한 몸이 됨
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?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?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. 도대체 무슨 말이냐?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? 그분께서 이르시되,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, 하시느니라.
 - iii. 블레셋 여자 들릴라와 사랑에 빠짐 (삿 16:4)
- d. 들릴라에게 속아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털을 밀림 (삿 16:19)
 - i.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여자 앞에 쓰러졌다는 것을 기억하자
삼손, 다윗, 솔로몬 등
 - ii.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편이지만, 결혼한 자매들은 남편의 보호자가 되어야 함
 - iii. 현재 이성교제 중인 자매들은 사귀고 있는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함.

C. 죄에 빠져 실패한 삼손의 상태

1.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
 - a. 구약시대 성령 - 특별한 사역을 위해, 일부 사람들에게, 한시적으로 임하다가, 임무가 끝나거나, 그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심 : 구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므로
 - b. 신약시대 성령 -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, 영원토록 떠나지 않음
 - c. 삼손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님 -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이므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취소하지는 못함.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됨
 - d.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,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,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됨.
2.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됨
 - a.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고(16:19), 눈을 잃고(16:21), 결박된 채 감옥에서 소가 돌리는 연자 멧돌을 돌림 (16:21) - 짐승 같은 생활을 함
 - b.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됨.
(롬 6:16)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?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.
 - c. 죄의 종이 될 것인가,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? - 아무도 강제하지 못함. 우리의 선택.
3.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됨
 - a.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재주를 부림 (16:25)
 - b. 그의 실패로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영광이 돌아가고,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
 - c. 우리가 죄를 지을 때, (특히 목회자와 같이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는)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,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.

D. 삼손의 기도 – 나를 기억하소서!

1.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기억하고 계신다.
 - a.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, 삼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.
 - b. 삼손은 하나님을 잊어도,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신다.
 - c. 따라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.
2.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행실을 알고 계신다.
 - a.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, 그가 나사르 사람의 법을 어긴 것도, 방탕한 생활을 한 것도, 어떻게 들릴라의 꾀에 빠졌는지도 알고 계신다. (시 139:1-4) 오 주여,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.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, 오 주여,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.
 - b.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두려운가?
그가 나를 적대시하는 자라면 두렵겠지만,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시는 분이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, 그분께 나아가 나를 맡길 수 있다.
3. 삼손의 기도: 나를 기억하소서!
 - a. 삼손의 첫 기도는 “물을 달라”는 기도였으나(삿 15:18), 그의 마지막 기도는 “다시 강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”이었다.
 - b. 삼손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가?
 - i. 나사르 사람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 죄인을 기억하소서!
 - ii.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에 실패한 “나”를 기억하소서!
 - iii. 결혼생활에 실패하고,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“나”를 기억하소서
 - iv. 눈을 잃고, 노예가 되어, 조롱당하고, 하나님을 욕되게 한 “나”를 기억하소서
 - v. **이번 한 번만** (16:28) – 우리도 자주 이런 기도를 한다.
 - c. 삼손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.
(히 4:16)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.
4. 기도의 응답을 받음
 - a. 하나님의 영이 돌아옴 –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쓰임받게 됨
 - b. 그의 힘이 회복됨 –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됨
 - c.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둠(전사한 것이지 자살은 아님)

E. 도전과 적용

1. 우리는 누구나 나약한 점들이 있으며, 생활에서 사역에서 여러 번 죄와 실패를 경험한다.
2.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,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,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다.
3. 삼손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,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자.